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여름휴가]

국민 대다수(85%), 올해 1박 이상 여름휴가 계획 있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총신대 신대원(예정 합동) 여성 졸업생 조사
- 2) 맞벌이 부부 실태

3. [넘버즈 칼럼] 돌봄과 교육으로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국민 대다수(85%), 올해 1박 이상 여름휴가 계획 있다!

초중고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또 계절은 여름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大暑)'를 막 지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로 '휴가'가 빠질 수 없다.

작년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의 요인으로 휴가를 다녀온 국민이 10명 중 3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박 이상의 여름휴가를 다녀왔거나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휴가를 통해 '휴식', '답답함 및 스트레스 해소'(여름휴가 주 목적 각각 1, 2 위)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물가·고환율의 영향으로 휴가도 쉽지 않다. 휴포족이 늘고, 가구당 평균 국내 여행 지출 예상비용은 100만 원에 가깝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반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해외여행 상품 예약률은 취소자 없이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넘버즈 154호>에서는 '한국인의 휴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휴가 트렌드'를 알아보는 한편 '휴가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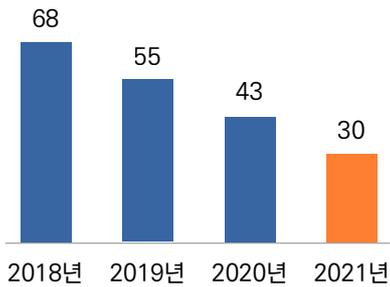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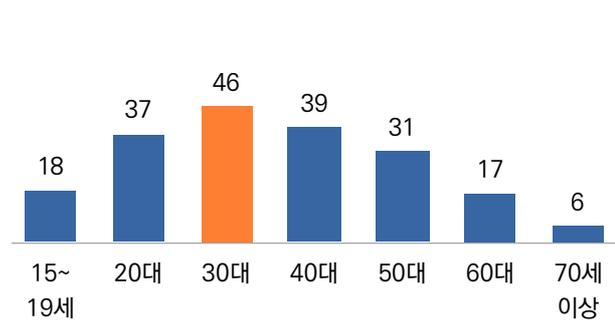
작년 한 해 동안 휴가 다녀온 국민, 10명 중 3명으로 낮아!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 변화와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0,000명이라는 대규모 표본을 활용, 매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넘버즈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휴가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 ▶ 2021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휴가 경험률', 즉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비율'은 30%였는데, 2020년 코로나 19 이후 휴가 경험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 ▶ 연령별로 보면 30대 연령층에서 4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휴가 경험률을 보인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10%의 낮은 휴가율을 보였다.

[그림] 휴가 경험 (%)



[그림] 휴가 경험 (2021년 기준, 연령대별,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 활동조사', 2021.12.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0,049명, 일대일 가구방문 면접조사, 2021.09.23.~2021.11.26.)

◎ 우리 국민, '작년 한 해' 4.8일 휴가 사용하고, 여름휴가는 3.2일 다녀왔다!

- ▶ 우리 국민의 작년 한 해 사용한 총 휴가는 평균 4.8일이었고, '휴가 사용자'의 휴가 일수를 살펴보면 '5일 미만'이 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9일(27%), 10~19일(8%) 순이었다.
- ▶ 계절별 휴가 일수를 보면 여름휴가 기간이 가장 길데 평균 3.2일로 나타났다.

[그림] 휴가 일수



[그림] 기간별 휴가 일수 (휴가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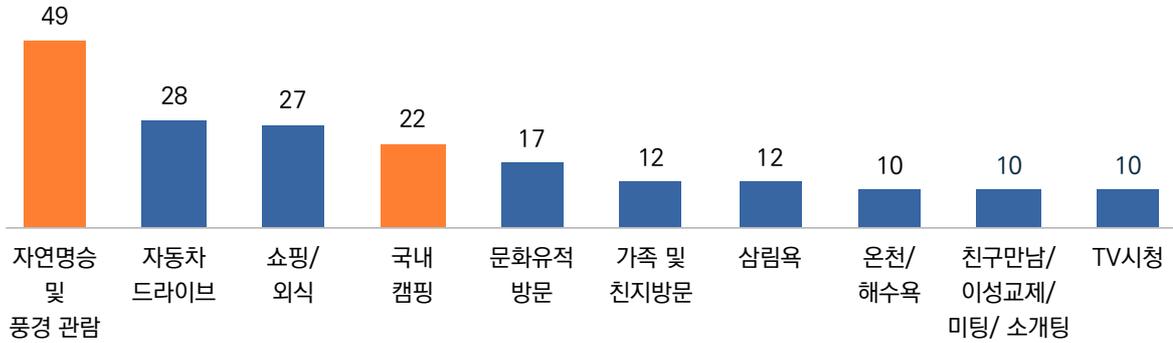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 활동조사', 2021.12.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0,049명, 일대일 가구방문 면접조사, 2021.09.23.~2021.11.26.)

◎ 지난 1년 간 휴가 활동, '캠핑' 20%!

- ▶ 지난 1년 간 휴가 활동(중복응답)을 물은 결과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드라이브', '쇼핑/외식', '국내캠핑'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심했던 시기라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 ▶ 특히 5명 중 1명 이상이 캠핑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휴가 중 여가활동 (휴가 사용자, 중복응답, 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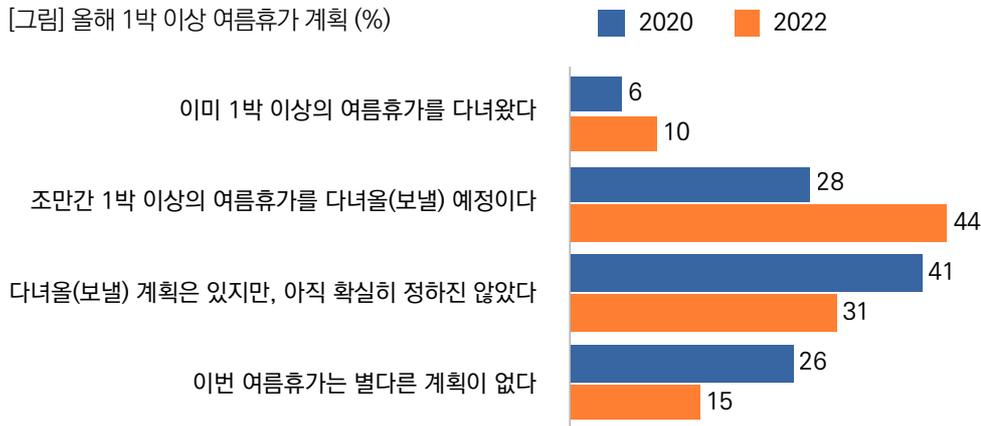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 활동조사', 2021.12.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0,049명, 일대일 가구방문 면접조사, 2021.09.23.~2021.11.26.)

02

국민 대다수(85%), 올해 1박 이상 여름휴가 계획 있다!

- ▶ 우리국민은 올 여름에 어떤 휴가 계획을 갖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의 85%가 올해 여름휴가를 다녀왔거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림] 올해 1박 이상 여름휴가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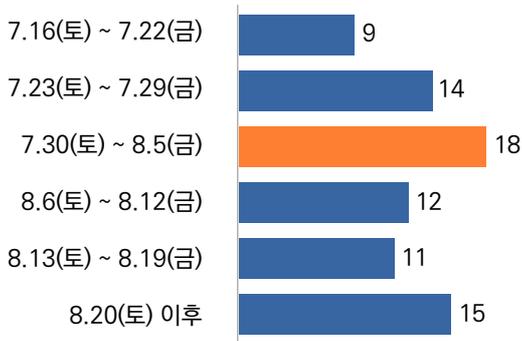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여름휴가 및 스테이케이션, 캠핑 관련 인식 조사', 2022.07.01.(서울 및 인천 ·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성인 남녀, 온라인 조사, 2022.06.17.~2022.06.21.)

◎ 이번 여름도 '7월말 ~ 8월초'에 가장 많이 떠나고, 가구당 평균 국내 여행에 95만 원 지출 예상!

- ▶ '여름휴가 여행 출발 예정일'을 묻은 결과 '7월 30일부터 8월 5일'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이 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월 20일 이후'가 두번째로 많았다.
- ▶ 가구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 예상비용은 작년 88만원에서 올해는 '95만원'으로 7만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여름휴가 출발 예정일 (여름휴가 계획자, %)



[그림] 여름휴가 '가구당' 국내여행 지출 예상비용(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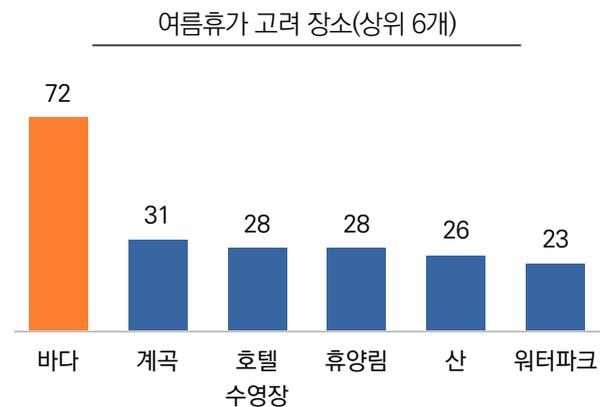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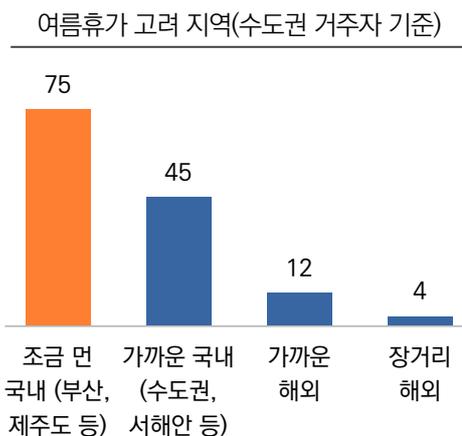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2 하계휴가철 통행실태조사, 2022.07.20.(본조사 9,654세대/추가조사 5,314세대, 모바일 조사, 2022.06.21.~2022.07.09.)

◎ 올 여름휴가(수도권 거주자 기준)는... 부산, 제주도 등 조금 먼 국내(75%)로 떠나, '물놀이' 계획 중이다!

- ▶ 여름휴가로 '국내 지역'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수도권 거주자 기준, 조금 먼 국내 75%, 가까운 국내 45%), 코로나19 봉쇄가 완화되면서 6명 중 1명(16%)은 해외 여행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 ▶ '여름휴가 고려 장소'로는 '바다', '계곡', '호텔 수영장' 등의 순으로 나타나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여름휴가 고려 지역 및 장소 (여름휴가 계획자,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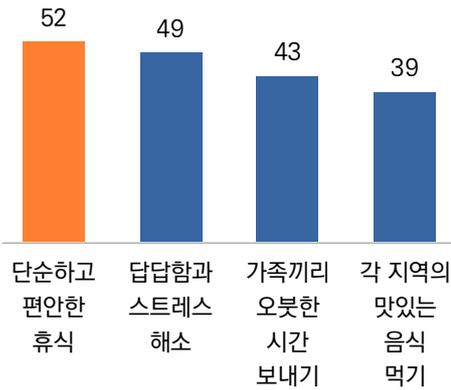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여름휴가 및 스테이케이션, 캠핑 관련 인식 조사', 2022.07.01.(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성인 남녀, 온라인 조사, 2022.06.17.~2022.06.21.)

◎ 여름휴가 주된 목적, 2030은 '식도락 여행', 4050은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 ▶ 올 여름휴가의 주 목적은 '단순하고 편안한 휴식'(52%), '스트레스 해소'(49%),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기'(43%), '각 지역의 맛있는 음식 먹기'(39%)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 ▶ 주목할 부분은 연령별로 '여름휴가의 주된 목적'에 차이를 보인 점이다.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함은 공통적이었지만, 20대와 30대의 경우 '식도락 여행'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됐고, 40대와 50대는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기'를 비교적 많이 꼽았다.

[그림] 올해 여름휴가 주된 목적 (여름휴가 계획자, 중복응답, 상위 4위, %)



[표] 올해 여름휴가 주된 목적 (여름휴가 계획자, 중복응답, 연령별, 상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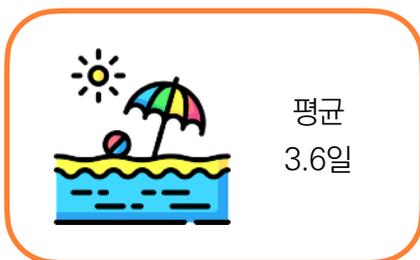
연령	1위	2위	3위
20대	단순하고 편안한 휴식 (57%)	답답함과 스트레스 해소 (57%)	각 지역의 맛있는 음식 먹기 (41%)
30대	단순하고 편안한 휴식 (52%)	답답함과 스트레스 해소 (50%)	각 지역의 맛있는 음식 먹기 (45%)
40대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기 (56%)	단순하고 편안한 휴식 (51%)	답답함과 스트레스 해소 (39%)
50대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기 (54%)	답답함과 스트레스 해소 (50%)	단순하고 편안한 휴식 (50%)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여름휴가 및 스테이케이션, 캠핑 관련 인식 조사', 2022.07.01.(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성인 남녀, 온라인 조사, 2022.06.17~2022.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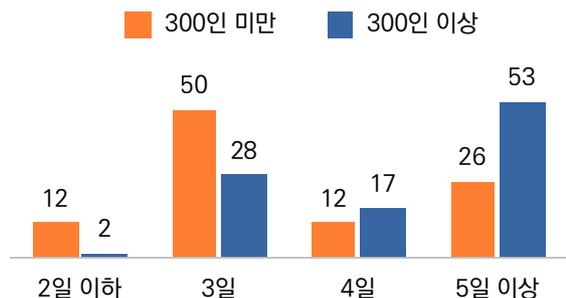
03 올해 직장인 여름 평균 3.6일 휴가 간다! 휴가 일수 '기업 규모별' 차이 보여!

- ▶ 올해 직장인들의 평균 휴가 일수는 얼마나 될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올 여름 평균 휴가 일수는 3.6일로 조사됐다.
- ▶ 기업규모별 여름휴가 일수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0인 미만'은 '3일'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특히 5일 이상의 휴가의 경우 대기업이 2배가량 높았다.

[그림] 올 여름휴가 일수



[그림] 기업규모별 하계 휴가 일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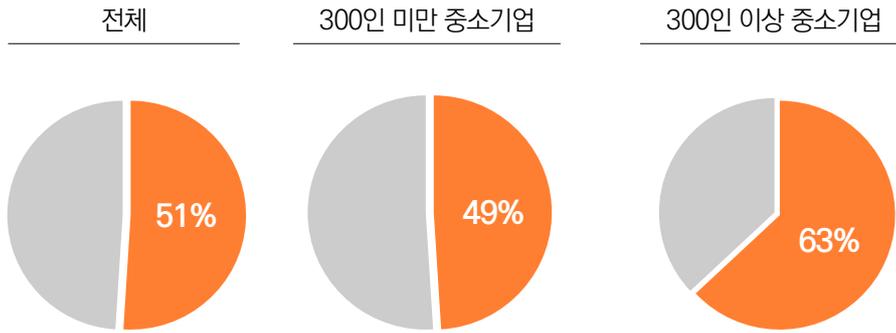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 결과, 2022.07.(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 팩스 및 이메일 조사, 2022.06.27~2022.07.05.)

◎ 휴가도 양극화? '휴가비 지급 계획' 대기업 63% > 중소기업 49% '휴포족' 늘어도 '해외여행' 예약률 굳건!

- ▶ 앞서 기업규모별로 '휴가 일수'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휴가비 지급 여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 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51%로 나타났는데,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이 63%, 300인 미만 기업은 49%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4%p 높게 응답했다.
- ▶ 한편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여파로 휴가를 포기하는 '휴포족'이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해외 여행 상품 예약률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휴가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여름 휴가비 지급 계획 '있다' (기업규모별, %)



*자료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 결과, 2022.07.(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 팩스 및 이메일 조사, 2022.06.27.~2022.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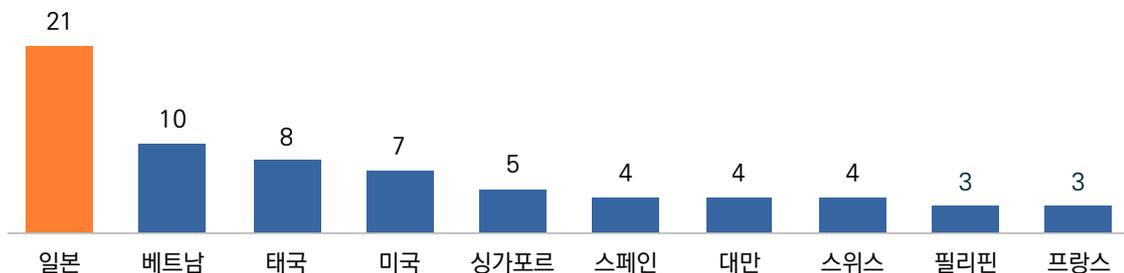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연합뉴스, '한쪽은 '휴포족' 한쪽은 유럽여행...고물가 속 휴가는 양극화' 기사 참조, 2022.07.19.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8101200004?section=search>)

04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1위는... '일본'!

- ▶ 카드사인 visa가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리턴투 트레블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년 이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46%)되며,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일본'(2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 해외여행 국가별 선호도 (1년 이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자, 상위 10개국, %)



*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 '해외여행 어디로 떠날 계획이세요?' 물었더니...1위는 '이 나라' 기사 참조, 2022.07.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115582740730&type=1>)

<원자료 : VISA, '한국 소비자 대상 해외여행 동향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07.11.(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9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 2022.05.27.~06.08)>

05

'올해에도 호캉스 많을 것 같다' 62%!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비대면 활동 증가 등의 상황에서 나타난 호캉스(스테이케이션·플레이케이션) 흐름이 올해 여름에도 지속될 것인지를 묻은 질문에 '올해에도 많을 것 같다'는 응답이 62%로 비교적 높았다.

[그림] 호캉스(스테이케이션·플레이케이션) 트렌드 지속 예상(%)



* 스테이케이션
: '스테이(stay)'와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를 멀리 가지 않고, 집 혹은 집 근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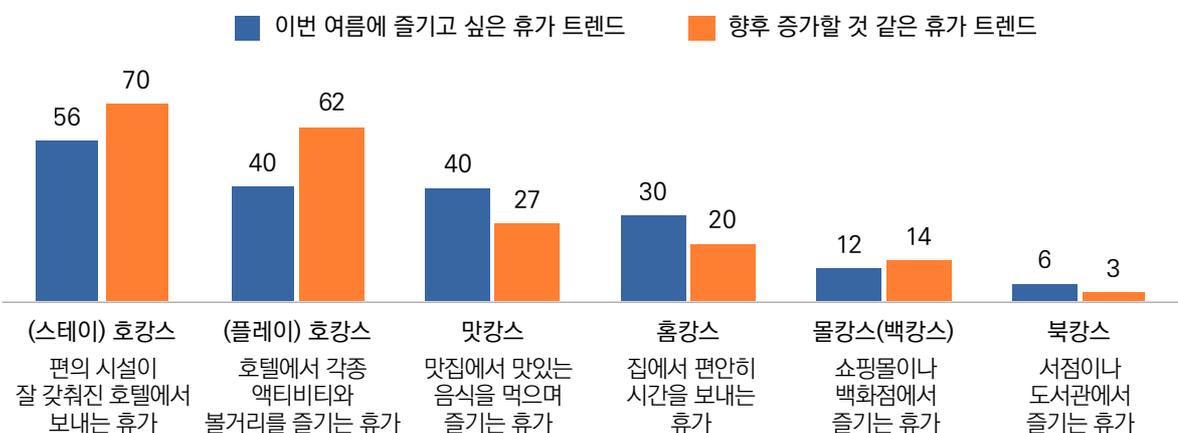
*플레이케이션
: '플레이(play)'와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로 단순히 가까운 도심 속 호텔 등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스테이케이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즐길 요소가 많은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놀고 쉬는 것을 뜻함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여름휴가 및 스테이케이션, 캠핑 관련 인식 조사', 2022.07.01.(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성인 남녀, 온라인 조사, 2022.06.17.-2022.06.21.)

◎ 향후에도 호캉스(스테이케이션·플레이케이션) 휴가 트렌드 강세 예상

- ▶ '올 여름 즐기고 싶은 휴가 유형'으로는 '호캉스'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테이호캉스'(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 5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플레이호캉스'(호텔에서 각종 액티비티와 볼거리를 즐기는 휴가, 40%), '맛캉스'(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휴가, 40%), '홈캉스'(집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는 휴가, 30%) 등의 순이었다.
- ▶ 한편 향후 증가할 것 같은 휴가 트렌드로는 '스테이호캉스'(70%)와 '플레이호캉스'(62%)가 단연 높아, 호텔을 중심으로 한 휴가 트렌드가 향후 더욱 선호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이번 여름 즐기고 싶은 휴가 유형 vs 향후 증가할 것 같은 휴가 트렌드 (중복응답,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여름휴가 및 스테이케이션, 캠핑 관련 인식 조사', 2022.07.01.(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성인 남녀, 온라인 조사, 2022.06.17.-2022.06.21.)

여름의 절정이 왔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다로, 산으로, 들로 휴가를 떠난다. 그런데 최근 3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했다. 2019년에 휴가를 다녀 온 비율이 55%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42%로 13%p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더 줄어서 30%의 비율을 보였다.(3쪽)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가 확산되어도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아서 감염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많이 떠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사에서 포착되었다.(4쪽)

현대인들은 휴가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긴데, 이 휴가를 위해 1년을 일한다고 할 정도로 휴가를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휴가를 필수적으로 여기는데, 코로나19 와중에 회사에서 가장 일이 많고 소득도 높지 않은 30대가 휴가를 다녀 온 비율이 46%나 될 정도로 가장 높았다.(3쪽)

휴가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난 것이 온전한 '쉼'을 위한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요즘 일부이기는 하지만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서 휴가지까지의 운전,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가지 않고 고급 호텔에 투숙하여 호텔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쉼'을 즐기는 휴가를 말한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호캉스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텔들은 이들을 겨냥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쉼'을 위한 또 다른 휴가 종류가 '캠핑'과 '삼림욕'이다.(4쪽) 여기저기 관광과 구경을 하는, 어찌 보면 피곤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니라 정적인 상태에서 '쉼'을 누리는 '캠핑'과 '삼림욕'은 새로운 휴가 패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휴가가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여기겠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나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현대인이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노동일/노동시간 단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 유한계급론에서 베블렌이 분석했듯이 과시적 여가 활동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노동자 계급은 휴가를 꿈도 꿀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은 생명

의 안전을 위협할만큼 가혹했다. 이에 맞서 노동일/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그 결과로 노동일과 노동시간이 줄어 들면서 휴가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유급 휴가 실시가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한 구조적 요인이었다. 유급휴가는 기업가와 일부 화이트칼라의 전유물이었으나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유급휴가가 확산되었다. 무급 휴가라면 휴가를 주저했을 노동자들이 유급 휴가가 되면서 임금이 줄어들 염려없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휴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 개선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은 지금도 노동조건이 휴가의 양과 질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간에 휴가 일수와 휴가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0인 미만의 기업 종사자는 3일 휴가의 경우가 50%로 가장 많은데 비해,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에서는 3일 휴가가 28% 밖에 되지 않고 5일 이상 휴가 비율이 53%로 더 많았다.(6쪽) 즉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휴가를 더 길게 가는 것이다. 또 휴가비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49%가 지급하는데 비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63%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쪽)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 여름휴가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지만 모두가 갈 수 없다. 그리고 일부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가지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휴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이들을 위해 교회가 좋은 휴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형 교회 가운데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이 시설들을 본 교회 교인이나 외부 교인에게까지 개방하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일에는 시설 자체 예배나 본 교회의 예배를 중계하여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한다면 좋은 휴가가 될 수 있다. 기도원/수양관 주변을 관광하는 능동적 휴가도 가능하고 시설의 성격을 감안하여 조용한 '쉼'의 휴가도 가능하다. 기도원/수양관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들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1) 박선권, '현대적 여가의 특성과 그 내재적 의미', 2003년 12월,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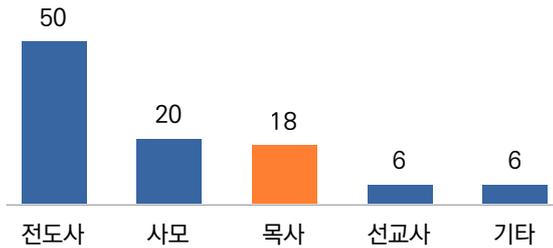
- 1.[총신대 신대원(예정 합동) 여성 졸업생 조사]
- 2.[맞벌이 부부 실태]



총신대 신대원 여성 졸업생, 안수받은 '목사' 비중은 10명 중 2명(18%)에 그쳐

- ▶ 현재 한국교회에서 여성목사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 속하는 '총신 신대원'의 '여동문화'에서 최근 여성 동문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동문화 사역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 현재 직분을 묻는 문항에 전도사가 50%로 가장 많았고, 사모 20%, 목사 18%** , 선교사 6% 순이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그림] 총신대 신대원 여성 졸업생 현재 직분 (%)



*자료 출처 : 국민일보, 여성목사 안수 불허 예정합동, 여성 인재 이탈 심각 기사 참조, 2022.06.22.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388&code=23111111&sid1=c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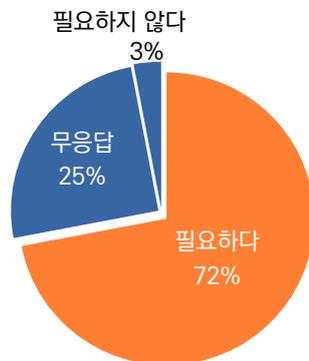
*원자료 출처 : 총신대신대원 여동문화, '2022년 여동문화 사역현황 실태조사', 2022.06.15. (총신대신대원 졸업생 및 재학생 224명, 2022.05.20.-06.09)

**정확한 수치는 목사와 강도사가 각각 17.8%(40명), 0.4%(1명)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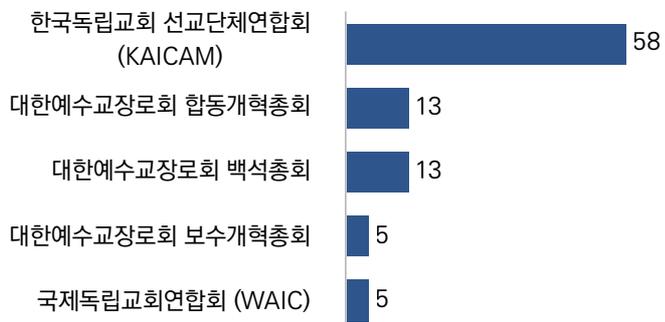
◎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 '여성안수 필요하다' 72%

- ▶ 여성 목사 안수 불허에 대해 여동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성 안수'가 필요한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72%는 '여성의 목사 안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에 그쳤다.
- ▶ 그럼, 총신 신대원 여동문 중 목사안수를 받은 여성목사는 어떤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 절반 이상(58%)이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KAICAM)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 예정 합동개혁총회와 예정 백석총회가 각각 13%를 차지했다.

[그림] 여성 목사 안수의 필요성



[그림] 안수받은 교단 (목사 안수 받은 여동문 대상, 상위 5개, %)



*자료 출처 : 국민일보, 여성목사 안수 불허 예정합동, 여성 인재 이탈 심각 기사 참조, 2022.06.22.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388&code=23111111&sid1=chr>)

<원자료 출처 : 총신대신대원 여동문화, '2022년 여동문화 사역현황 실태조사', 2022.06.15. (총신대신대원 졸업생 및 재학생 224명, 2022.05.20.-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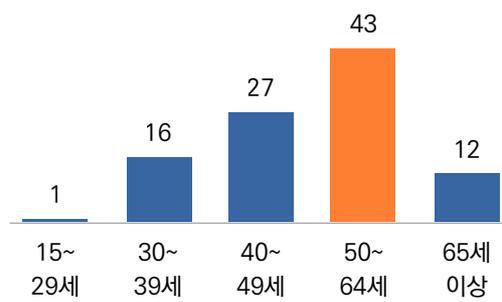
맞벌이 가구, 전년 대비 23만 가구(4%) 증가!

- ▶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582만 가구로 전년(559만)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50~64세가 43%로 가장 많았고, 40~49세 27%, 30~39세 16% 순이었다.

[그림] 맞벌이 부부 (가구)



[그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 (202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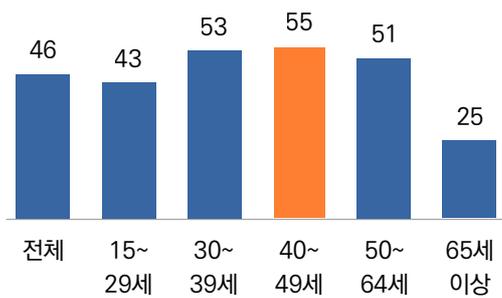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22.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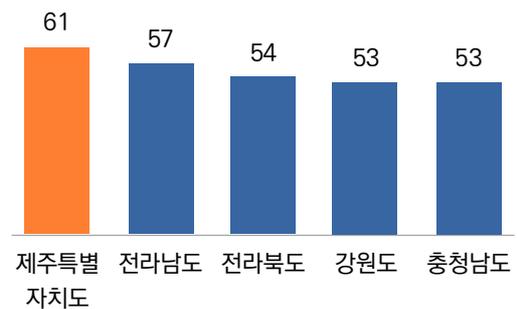
◎ 맞벌이 가구,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 절반 가까이(46%) 돼!

- ▶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46%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30대~60대 초반 연령까지 절반이 넘는 맞벌이 비율을 보이고 있다.
- ▶ 지역별로 보면,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17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높았다.

[그림]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중 (2021년 유배우자 가구 기준, %)



[그림] 지역별 맞벌이 가구 비중 (2021년 기준, 상위 5위, %)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22.06.21.

돌봄과 교육으로

- 당진동일교회 어린이 사역 사례 -

이수훈 목사
(당진동일교회)

맞벌이 가정의 아이가 목에 아파트 열쇠를 걸고 다녔다.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에 빈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봤다. 아마 엄마는 간식거리는 메모와 함께 남겨두셨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아이는 이내 자기 방에 들어가 쓰러져 자게 될 것이고 허둥지둥 달려온 엄마는 아이를 깨워 씻기고 저녁을 챙겨주려고 할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딱딱하고 고단했다.

아이들의 일과는 학교에서 학원으로 또 학원으로 돌고 돌아 집에 돌아갈 때는 파죽이 되어 갔다. 달려도 달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일류 대학과 취업 문을 향한 몸부림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버거운 길로 내몰리고 있었다. 답이 보장된 길은 아니지만 사회가 다 그리하다 보니 너도나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느날 부모님 대신 안전하게 놀아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세상 이야기도 들려주고 영어 수학도 좀 도와주고 저녁 식사라도 엄마 마음으로 먹여서 편안하게 부모님이 계시는 저녁 시간에 집에 데려다주는 일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님 마음에도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점점 커져갔다. 이제는 엄마 공동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 교회 마당에서 뛰놀고 있다. 어린이집(종교법인) 아이들까지 합하면 매일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를 통한 사역이 좋게 소문으로 퍼져가게 되었고 엄마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다 보니 당진시에 있는 어린이 12.4%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12개 초등학교 1,335명이 교회 등록 초등생이고 전 성도들의 나이가 평균 29세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젊어진 것이다. 처음에 단순 돌봄으로 몇몇 아이들과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 아이들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신나고 재밌어했다. 틈틈이 성경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예절도 가르치고 줄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했다. 아이들은 별의별 거리를 다 만들어 놀곤 했다. 시시한 놀이였지만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 신이 났다. 이것이 자유와 기쁨이 아닌가 싶었다.

돌봄에서 교육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돕기 위하여 점점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전해갔다. 우선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목적성을 정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듯 너새니얼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자라게 하고 싶었다. 그 말씀은 다니엘 1장 4절의 말씀이다.

(단1: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최악의 상황에서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드러난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자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인물상을 정했다. 그래서 강조하는 일이 정직성이다. 자신에게 정직할 것, 이웃에게 정직할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으로 항상 고백하게 했다.

요일별 교육

신앙

월요일은 큐티를 하는 날이다. 주일 말씀을 공책에 받아쓰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생님이 질문지로 만들어 질문하고 답하는 토론식 하브루타식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떤 때는 어른들보다 더 지혜로운 대답을 하며 정말 신나는 큐티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항상 말씀과 예배 속에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초등 학생들은 주일 9시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때 아이들은 꼼꼼히 설교를 기록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논리력과 문해력을 키우며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자란 대학생들이 교회 중심적인 젊은이로 지내는 것을 보면 결과가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놀이

수요일은 노는 날이다.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창의적인 놀이를 잘 만들어 놀 줄 안다. 6학년이 되면 팀장이 되는데 1-5학년 동생들로 다양한 어린이를 팀으로 인도하게 되는 방법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또래로 자라서 대학과 군대까지 또래별로 자라가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비로소 나이 벽을 만나게 된다. 업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관계가 어려워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예전엔 마을에서 가족간에 사회성을 배웠는데 오늘날엔 인간관계 폭이 훨씬 좁아지고 말았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라 생각되었다.

팀장이 되어 어린 동생들을 인도하고 돕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견스럽고 기대가 되고 든든하다. 한 예로 단체 줄넘기를 하는데 1학년 아이가 계속걸리자 6학년 누나가 뛰어 들어가더니 1학년 아이를 업고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인격과 사회성이라 생각한다.

영어 수학

월부터 금요일까지 생활영어를 배운다. 매일 2시간을 영어로 말하고 책을 읽고 대화를 하도록 힘을 쓰고 있다. 말하는 영어 시간을 제공하는 셈이다. 그리고 학교 영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게 한다.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영어는 쉬운 과목이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든다. 어려서부터 영어의 벽을 깨 주는 노력인데 국제사회에서 언어 때문에 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성과가 높다. 스스로 공부의 맛을 알게 하는 일을 쉽 없이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 중에서 교사로 선임받아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이 엄마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필요를 잘 챙겨주신다. 이모 같은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코치 선생님이다. 수학도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선생님과 상의하고 이해해 가는 그런 수업을 한다. 평균 80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6학년이 되면 영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인성훈련

학력은 높아가고 있는데 사회는 점점 강박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예절과 인격이 사나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일인 일 악기 연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등을 지도한다. 누구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찬양하는 리더로 연주하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리더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아이들이 연주회를 한다.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사 같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안심

엄마들과 함께 학교 마당에서 아이가 교회로 오는 차량에 오르면 엄마께 인증사진이 날아간다. 엄마는 안심하게 되고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자연스럽게 수요일 저녁 예배와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에도 아이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도적인 계획속에 한 일은 아닌데 어린이 돌봄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가 젊어지고 있으며 부흥하고 있게 된 것이다. 처음 한 아이를 데리고 놀던 때가 생각난다. 사택에서 가족처럼 놀아주었다. 한 아이가 좋게 자라자 이웃아이를 맡겨주셨고 그렇게 하여 지금은 엄마 공동체 기관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지금은 엄마들이 서로 협의하며 운영해 가고 있다. 적절한 지도의 응원과 기도로 돕고 있는데 교회는 상호 작용 속에 서로 얻고 누리는 것이 풍성해 짐을 느낀다.

간힌 아이들을 향하여

코로나로 아이들이 2년여 동안 집에 머물렀다. 부모님 없는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직장에 있는 엄마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때 도시락 심방을 하게 되었다. 점심시간에 배달된 도시락 소식을 직장에 있는 엄마가 듣게 될 때 울먹이는 엄마들의 전화가 교회로 왔다. “엄마. 오늘 도시락 먹었어요. 교회 이모가 가져왔는데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외로운 하루하루를 챙겨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방 해 돌봐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리고 좀 교육으로 비 대면 교육을 거치면서 기초 학력이 현저히 낮아짐을 보게 되었다. 급히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독수리 캠프를 1달 동안 운영했다. 놓친 공부를 잡아주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을 불러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많이 걱정되었고 놀랐다. 그리고 떨어진 학습을 도울 수 있었다.

교회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란 이름으로 전국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 95-98년 어린이집이 종교법인에 위탁하려고 할 때 교회는 국가 통제를 염려하며 머뭇거리다가 선교원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역사를 경험했었다. 국가는 긴급히 어린이를 돌볼 시설을 위하여 민간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급했던지 그 이름도 구조도 너무도 복잡하기만 하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직장, 가정, 공공, 민간 어린이집 등 이름도 운영도 지원도 다양하다. 이 국립, 공립, 유치원, 민간 유치원, 법인 유치원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난립하는 이유는 뭘까? 어린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놓쳤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그렇게 어린이집 운영이 국가 주도로 시작되면서 전국 교회에서 선교원이 다 사라졌다. 그 결과는 바로 주일학교 소멸로 이어졌다고 본다.

지금은 또 하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적극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말로 또 하나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내어 주는 것이다. 국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시간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일어나 돌봄센터를 운영 하면 일시에 돌봄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0,000여 교회들이 개별 교회가 하든 연합으로 하든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사회문제를 품고 나간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이 원하는 바를 돕고 싶고 이미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단순히 교회가 주일학생 수를 늘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탁월한 인재 양성을 감당해가는 사명을 붙잡기를 기대해 본다. 좋은 인재란 어떤 핏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인재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을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

복음은 막힌 적이 없었다. 어느 시대이건 복음을 위하여 열려 있던 시대는 거의 없었다. 죽임과 핍박과 환란이 항상 가로 막았지만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 강하게 도전했다. 예배를 막았고 만남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속에서 더욱 발버둥을 쳤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꽃바구니를 배달하고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 드렸다. 그리하므로 성도들이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번만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복음은 필요를 따라 접촉점을 찾았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길을 지켜 주셨다. 앓은뱅이에게는 일어날 힘을 주셨고 치명적인 환자들은 치유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셨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일하는 곳이라 생각했다. 어린이들을 돌보았는데 교회는 많은 것을 얻게 하셨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04호\(2022년 7월 3주\)](#)

- 사형제 존폐, 흉악 범죄 발생 원인, 경제 전망, 부동산 집값 전망 등

[더 강해진 '어대명'...민주당 대표 후보 지지도 이재명 42.7%, 3주 전 보다 7.0%p ↑](#)

문화일보_2022.07.25.

◎ 사회 일반

[출산율 3년 연속 세계 꼴찌](#)

조선일보_2022.07.21.

[젊은 세대일수록... "사랑한다면 인종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어"](#)

연합뉴스_2022.07.20.

[영유아 가구 50.3% "아이 낳고 키우느라 직장 그만둔 적 있다"](#)

연합뉴스_2022.07.20.

["집에 로봇 친구 있나요?" 세계 1위 '로봇 나라' 한국](#)

국민일보_2022.07.23.

[취약계층에 가혹한 코로나19 ...소득하위 10% 사망률, 전체의 2배](#)

조선비즈_2022.07.24.

[파이어족 "나 회사 돌아갈래"... 주식 급락-물가 급등에 일터로](#)

동아일보_2022.07.21.

[교사 61%, 하루 1번 이상 방해·욕설 등 학생 문제행동 겪어](#)

연합뉴스_2022.07.25.

[작년 가구당 순자산 5.4억원...부동산 가격 상승에 8% ↑](#)

연합뉴스_2022.07.21.

[요즘 부동산 손님 10명 중 3명 중국인](#)

조선일보_2022.07.23.

["딸 꼭 있어야" 55% vs "아들 꼭 있어야" 31%](#)

주간조선_2022.07.25.

[미국 MZ세대 사망률 1위 약물, 국내 급속 확산](#)

주간조선_2022.07.25.

◎ 청소년 / 청년

[청년인구 ↓, 졸업·취업기간 ↑ ...부모세대 '허리 휨다'](#)

중앙일보_2022.07.19.

[3년간 주택 구매 10명중 3명이 MZ세대...서울 비중 가장 높아](#)

연합뉴스_2022.07.2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이 음식’ 먹으면 인지능력 떨어진다](#)

헬스조선_2022.07.21.

◎ 트렌드

[여성용 남성용은 옛말...남녀 경계 사라진 '젠더리스' 열풍](#)

매일경제_2022.07.20.

[온라인 쇼핑몰 '유료 멤버십'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2.07.22.

◎ 기독교 / 종교

[미국인 절반 ‘미국 내 종교 자유 쇠퇴한다고 느껴’](#)

한국일보_2022.07.21.

◎ 이슈큐레이션

[빛의 속도로 와버린 디지털 세상, 노인도 빛날 수 있어야죠](#)

동아일보_2022.07.24.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복음추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협회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섭,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립,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주식회사 참물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CTS기독교TV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휴간 안내

다음주(8월 2일)는 여름휴가로 [넘버즈]를 한 주 쉽니다.